

닛신보의 아시아 전략

불과 2년만에 해외생산 거점망을 만들어(I/II)

면방 기업들이 그 동안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난으로 고전하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닛신보는 일본 국내 생산시설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일본내 생산설비를 감축함과 동시에 해외 생산거점(生産據點)을 급피치로 확장하기 시작하여 2003년 2월에는 중국에 합판(合辦)으로 설립한 면방공장이 정상조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불과 2년만에 해외생산 거점은 중국에 4개 공장과 인도네시아에 2개 공장으로 동업 타사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생산 거점망을 아시아의 인건비 등이 저렴한 이웃나라에 만들어 냈다.

◎ 중국 생산거점

① 상주명력의 방직거점

강소성(江蘇省)의 방직회사인 “상주명력(常州名力)”은 그 동안 닛신보의 하나뿐인 섬유관련 합판회사였는데 2000년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출자비율이 33%로 되었다.

상주명력은 최근 강소성의 1만 7천추 규모의 방직공장을 사들여 시설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는 방적 7만 1.692추, 직기 954대 규모가 되었다.

닛신보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두꺼운 생지직물 중 캐주얼 의류용 등으로 연간 40만 50만m를 상하이(上海)에 설립될 현지 법인 “닛신보·상하이”로 하여금 판매를 맡게 할 것이다.

“닛신보·상하이”는 상주명력의 생지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합판회사의

영업활동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② 항주일면의 방·직·편·가공 거점

절강성(浙江省)의 항주일면(杭州一綿)에는 2001년에 출자비율 33%로 자본 참여하였으며, 생산시설은 방적 4만 9,584추, 직기 572대에, 월간 300만m의 직물가공 설비를 갖추고 있다.

닛신보는 일본에 갖고 있는 편성기 14대와 월 100톤 규모의 편지(編地) 가공설비의 이설공사를 금년 3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닛신보·상하이에는 이 공장이 생산하는 직물 중 연간 140만m를 판매하게 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이불잇, 여성용 나이트(nightly), 캐주얼 의류용 가공직물로 판매한다. 그 중 50만m 정도는 일본에서 날염 오리털 이불잇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게 될 것 같다. 또한 니트 생지는 연간 1,200톤의 전 생산량을 닛신보·상하이가 판매하게 될 것이다.

③ “영파일중방직인염”의 제직·사염 거점

닛신보의 중국 투자는 중국의 유력기업인 “양거 집단”과 “베켄 집단”과의 합판회사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된다.

닛신보와 “양거”와의 합판회사인 “영파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은 금년 1월에 절강성 영파시에 설립되었다. 닛신보는 이도쥬상사(伊藤忠商事)와 각각 10%씩 출자하여 사염(絲染)시설과 약 200대의 직기로 선염셔츠지를 연간 1,500만m 생산하게 된다. 생지는 40수 단사, 50수 단사급의 폴리에스테르/면 혼용과 면이 50% 이상되는 면 고율혼용이 중심이 될 것이며, 면 100%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원사는 “베켄”과의 합판회사인 “영파유과면방직”과 “상주명력”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다.

또한 연간 2,500만m를 처리할 수 있는 염색정리가공 시설도 도입하여, 그 중 1,500만m는 선염직물로 정리하고, 나머지 1,000만m는 무지(無地)로 염색

한 셔츠지나 순면의 질긴 능직물인 치노·클로스(chino cloth) 등의 가공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생지직물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닛신보의 자(子)회사인 “니까와·텍스타일”이나 상주명력, 항주일면으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 “영파일중방직인염”의 공장은 금년 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셔츠지 중에서 연간 300만m는 닛신보·상하이가 중국에 있는 일본계 어패럴에 판매할 계획이다.

④ 영파유과 면방직의 방적거점

“베켄 집단”과의 합관회사인 “영파유과면방직(寧波維科綿紡織)”은 닛신보가 25%, 이도쥬상사가 5% 출자하여 방적 9만추 시설로 연간 1만 2천톤의 방적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주요 생산품종은 순면 중번수(中番手) 코우머사로 10수 단사 80수 단사까지 폭넓은 번수의 면사를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생산품종은 카드사나 폴리에스테르/면 혼방사로 넓혀 나갈 가능성도 있으며, 정상적인 조업은 내년 2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닛신보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실 중, 연간 약 8천곤(困) 정도를 다루게 될 것 같다. “양거”가 주도하는 합관회사에서도 셔츠용 원사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중국내의 일본계 니터(knitter)에게도 공급해 주게 될 것이다.